

전남도 '포스트 코로나' 섬 관광 띄운다

'전남 섬 여행 전문 플랫폼' 오픈하고 관광객 몰이 16개 가고 싶은 섬, 4개 테마로 구분해 정보 제공

전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섬 관광 안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섬 관광을 띄우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현재의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이날부터 '섬 여행 전문 플랫폼'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는 16개의 가고 싶은 섬을 4개 테마로 구분해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섬마다 가진 매력, 예술작품, 즐길 거리도 사진을 곁들여 쉽게 설명했다.

우선 '일상을 벗어나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섬'에서는 연륙됐거나 여객선 접근성이 좋은 여수 남도와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신안 반월-박지도를 소개했다.

'천혜의 자연유산 갯벌과 함께하는 섬'의 경우 보성 장도, 무안 탄도, 신안 기점·소야도, 신안 선도를 꼽아 소개했다. 또 '푸른 해변과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섬'으로는 완도 생일도·소안도, 진도 관매도·대마도를, '혼행족을 위한 느리게

여행하는 섬'은 장시간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여수 손죽도, 완도 여서도, 신안 우이도, 영광 안마도 등을 제시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섬여행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섬 여행'을 클릭해 섬 여행 정보 등을 확인하면 스탬프가 찍힌 온라인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이섬에 가고싶다 챌린지'도 진행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온라인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는 개편된 '전남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www.jndadohae.com)에 접속해 사진과 글을 캡처한 후 본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태균 섬발전지원센터 전문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남의 섬 여행을 제안하고,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많이 고민해 제작했다"며 "향후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시상 22일 오후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제8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도의원 10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왼쪽부터 박문옥(목포1), 정옥남(비례), 강문성(여수2), 김기성(담양2), 이현창(구례), 임종기(순천2), 김희동(진도), 이광일(여수1), 이상철(곡성), 김경자(비례) 도의원

폭염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하세요

전남도 가입 दर려 보험료 80% 지원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가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폭염일수는 평년(9.8일)의 2배가 넘는 20~25일로 예측되고, 태풍도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재해로 인한 농작물 보상으로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 100억 원을 포함 총 100억 원을 투입,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공익직불제와 연계를 위한 홍보를 비롯 가입안내 문자발송, 현수막 게시 등 보험 가입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5월까지 도내 3만9000농가가 도비 55억 등 총

441억원을 지원받아 4만4843ha를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가입률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고추는 54%(가입면적 1852ha)가 가입해 지난해 대비 19%, 딸은 41%(1519ha)가 가입해 6% 이상 늘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벼와 콩, 원예시설(작물포함) 등으로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중이다. 올해 폭염피해가 우려된 작목 중 콩 가입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며, 벼는 오는 26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 여름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급 무더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며 "농가에서는 예상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8년 폭염과 햇빛 데임(일소)으로 과수 등에 피해를 입은 2000농가에 보험금 3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시민 불편 146건 해소

광주시 감사위

광주시가 현장 감사 활동으로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도와주는 감사"를 통해 146건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 감사 처분 9건, 부서 검토 46건, 시정 조치 91건 등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시정 요구,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차량 유턴 안내 표지판 설치, 공원 연못 난간 설치, 화장실 개방, 야외 운동기구 보완 등을 유도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치는 사안을 지속해서 확인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전쟁 70년 특별사진전 22일 광주시 동구 푸른길공원원형광장에서 열고 있는 "한국전쟁 70년 특별사진전"에서 임택 동구청장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전쟁 70년, 분단의 아픔과 극복"을 주제로 6.25전쟁과 남북갈등, 화해의 역사 등 50여 점의 사진들을 전시한다.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민 건강주치의 생긴다

건강 돌봄교실·왕진 간호 서비스

광주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2곳에서 입주민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건강 돌봄교실, 왕진·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우산동 하남수공2단지과 우산빛어울레 등 2곳에서 시작해 다른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와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주거·돌

봄·의료 질을 향상하는 '늘 행복 프로젝트'를 가동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SR Impact 등이 협약에 동참했다.

LH 등은 주거복지 증진,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 사회공헌기금 연결 등 각각 특화 사업을 펼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영구 임대아파트 정책의 틀을 '공급자와 거주'에서 '수요자와 행복'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청사 소나무 숲 야간 경관조명 설치

15일부터 시험...24일부터 연출

광주시는 22일 시민에게 야간 휴식공간 조성 및 불빛거리 제공을 위해 청사 전면 소나무 숲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관조명은 야간에도 소나무의 푸름과 자연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입체감을 살리는 데 중점두면서 빛을 바닥 면에서 상향 투과하는 방식으로 연출했다.

주황빛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소

나무 위치에 맞춰 79곳에 배열해 따뜻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험 점등을 거쳐 24일 본격적으로 연출을 할 계획이다.

점·소등은 일출·일몰 시간으로 할 예정이다.

강영천 시 회계과장은 "시민의 주요 활동 시간과 환경이 주간에 야간으로 차츰 변경돼 감에 따라 청사 전면 소나무 숲에 야간 경관조명을 연출해 시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문학자원 프로그램' 대상 5개 시·군 선정

목포·강진·담양·해남·고흥

전남도가 올해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사업대상으로 목포시, 강진군, 담양군, 해남군, 고흥군 등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은 도내 주요 작가와 작품, 생가, 문학공원, 문학관, 영화세트장, 작품 속 배경지 등을 활용해 문학축제를 비롯 문학콘서트, 문학유산 답사, 문학기행, 전시회 등을 개최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중인 남도 문예리네상스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 공모에는 목포시 등 7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사업은 ▲시문학과 김영랑·김현규 시인의 고흥 강진은 주민 큐레이터를 공모해 주민이 주도한 '목요 문

학 살롱' ▲목포는 문학단체, 서점, 도서관, 학교와 함께한 문학박람회, 목포문학길 투어 등 다양한 '문학 축제' ▲담양은 담양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관사 인문학가옥에서 담백살롱, 북적데이 등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해남에서는 지역민의 문학 향유 권진을 위해 학술 심포지엄, 문학토크 콘서트 등 '문학 페스티벌' ▲고흥은 한국대표 서정 시인인 '송수권 시인의 시와 음악이 있는 작은 콘서트'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정명섭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남은 한국을 대표한 여러 문인과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킨 고장으로, 이번 사업을 지역 문학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관광상품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